버스 음주단속 순천경찰서(서장 김진희)는 지난 21일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버스와 택시 등 운수업체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특별음주운전단속을 실시했다. 순천경찰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사업용 차량운전자를 대상으로 불시 음주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교통 무인단속 15곳 늘렸다

순천시 상습 정체지역 등 CCTV 설치

기존 9곳 포함 단속지역 24곳으로 늘어

순천시가 상습 교통혼잡 및 정체지역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내년부터 단속에 나선다.

순천시가 추가로 CCTV를 설치한 지역은 원도심 8개소와 신도심 7개소 등 총 15개소에 달한다.

이에따라 현재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9곳을 포함하면 무인단속지역은 24개소로 늘어나게 된다.

시는 내년부터 이들 지역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무인단속을 실시하되 필요시에는 별도시간을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승강장과 횡단보도,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등과 주요 간선도로 및 교통혼잡구역, 시민불편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순천시 홈페이지에 신규 설치 장소를 올리고 현수막, 전단배포 등 대대적인 시민홍보에 착수했다.

시는 이번 CCTV 확충으로 주요 간선도로변 교통정체 해소에 많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습 교통혼잡지역에 대해서는 CCTV 설치를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CCTV가 새로 설치된 장소는 의료원 로터리와 피아노모텔 앞, 삼산동사무소 삼거리, 장천동 LG텔레콤 앞, 장천동 남문약국 앞, 인제동 순천마트 앞, 남정동 광진지업사 앞, 순천자동차매매상사 앞, 조례삼거리, 드림내과 앞, 조례동킴스체인, 근린2공원 사거리, 나산부인과 사거리, 동광빌딩사거리, 파머스마켓 사거리 등이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지역 단신/

여수시 자원봉사 유공자 시상식

'여수시 2006 자원봉사 유공자 시상 및 제 10회 어울마당 행사'가 오는 28일 여성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는 오현섭 여수시장과 김정민 여수시의회 의장, 자원봉사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봉사 활동 사진 전시회 관람 및 만남의 시간, 자원봉사단 '파랑새' 밴드 공연, 시상식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특히 여천NCC(주) 사회봉사대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며, '21세기를 위한 모임'의 양방렬 총무가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한다. 이밖에 LG석유화학(주) 사회봉사대 등 10개 단체가 각종 표창을 받는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한약규격품 유통실명제 홍보

여수시보건소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시되고 있는 한약규격품 유통실명제 홍보에 나섰다.

여수시보건소는 최근 시청 홈페이지와 자체 홈페이지(yshealth.jeonnam.kr)에 한약 규격품 유통실명제에 대한 내용을 게재하고 관련사항을 위반한 한약제품을 발견했을때는 보건위생과(061-690-2663)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지난 3월 30만명선 무너진 여수시

인구 늘리기 '백약이 무효'

올해도 3천여명 줄어

전남 최대 도시인 여수시의 인구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말 여수시 인구는 29만8천25명으로 올해 1월1일 30만 1천389명에 비해 3천364명이 감소했다.

심리적 안정선으로 여겼던 인구 30만명은 이미 지난 3월 붕괴됐다. 여수 인구는 1993년 33만3천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 1998년 '3려 통합' 이후에는 폭이 커져 매년 3천500여명씩 감소해 왔다.

이같은 인구 감소는 출산율 저하와 함께 수산업 침체, 교육 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풀이된다. 특히 교육문제로 매년 신학기만 되면 많은 인구가 한꺼번에 외지로 빠져나가고 있다.

인구 30만명 붕괴 이후 여수시는 인구 늘리기에 갖은 노력을 다 했지만 결국 올해도 3천여명의 인구가 빠져 나갔다는 사실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인구 감소에 따른 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해 '1공무원 1시민 만들기' 운동을 추진해 왔고 유관기관 종사자들의 시 주소 갖기는 물론 올해부터는 셋째 이상의 신생아 출산 때 3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지만 별 효과를 못 본 셈이다.

이는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고 있는 인근 광양시와 대조적이어서 여수시의 인구 증가 대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갑작스런 인구 늘리기보다는 교육 인프라 구축 및 정주환경 개선, 관광·레저 등 새로운 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의 장기적 인구 유입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연말을 맞아 순천시 해룡면 용산 전망대에서 순천만 해넘이를 감상하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다. 순천만은 최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용역 결과 전국 서·남해안 바닷가 24곳 가운데 경관이 가장 뛰어난 지역으로 조사됐다. /송기동기자 song@

광양시 'IT연구소' 유치

5년간 국비 70억원 지원 받아

올해를 '유비쿼터스-시티 원년'으로 선포한 광양시가 IT 특화연구소를 유치했다.

정보통신부는 전국 12개 자치단체가 제출한 과제물에 대한 평가와 현장 실사를 거쳐 광양시를 IT 특화연구소 최종 후보지로 확정했다.

이에따라 광양시는 5년간 국비 70억원을 지원받아 순천대와 공동으로 광양만권 U-제조·물류 IT연구소를 설립, 광양만권 제조·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IT 연구소가 설립되면 관련 국책 연구사업과 광양만권의 제철, 석유화학, 물류기업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광양시는 지난 9월 'U-물류 광양시티 국제포럼 및 전시회'와 유비쿼터스 교육, 벤치마킹 등 유비쿼터스 시티 구축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펴왔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양식어류 겨울 날 월동장 찾아라

동사피해 정부지원 방침 변경

여수시 월동 적지 확보 나서

양식어민들이 월동장 확보에 고심하고 있다. 올해부터 월동장으로 양식 어류를 옮긴 뒤 동사 피해가 발생하면 복구비를 지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복구비를 주지 않는 것으로 정부 방침이 변경된 때문이다.

일부 어민들은 "현재 운영 중인 양식장이 저수온 피해와 별 상관없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굳이 양식장을 옮겨야 하는 것이냐"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또 "특정 해역을 월동장으로 지정하면 인근 해역에서 조업을 하는데 차질이 생길 것"이라며 걱정하는 분위기다.

어민 박모(56·여수시 남면)씨는 "올 겨울 바다 수온이 얼마나 내려갈지 모르는 상황인데 무작정 양식장을 월동지로 옮겨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여수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남해수산연구소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월동 대상지 기초 조사에 착수했다. 시는 남면 이야포, 역포 해역을 중심으로 수온, 조류 소통 및 주변 환경 조사를 통해 월동 적지를 물색할 계획이다. 시는 2곳 정도의 월동지를 확보해 이지역 양식 어류들이 겨울을 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3월 여수시 돌산읍, 남면, 화정면 일대 가두리 양식장에서 저수온으로 225어가에서 어류 735만마리가 폐사돼 94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 정부에서 47억원의 피해 복구비를 지원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순천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김유만씨

순천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김유만(48·사진)씨가 임명됐다.

지난 22일 취임한 김 상임부회장은 "국제대회나 전국단위 대규모 체육대회를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순천의 이미지를 대외에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상임부회장은 순천시 태권도 협회장과 제 2회 아시아 청소년태권도대회 국가대표 단장, 제 5회 세계청소년 태권도대회 국가대표 단장을 맡는 등 태권도 발전에 앞장서왔으며, 현재 한국 중·고 태권도연맹 부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光州日報 지사안내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전북	
여 수	653-8444 (686-8584)	목 포	276-9200	나 주	332-5544
광 양	792-8111	무 안	452-8535	나주남부	334-6969
보 성	853-9700	해 남	534-5151	화 순	374-4423
순 천	746-8111	완 도	554-6677	장 성	392-7000
고 흥	833-9900	영 광	351-0055	담 양	383-8111
녹 동	842-2121	신 안	243-3758	영 암	473-2340
구 례	783-8111	진 도	543-0100	장 흥	863-8822
곡 성	362-8111	강 진	433-8355	광 산	944-0444
		함 평	324-8111	고 창	564-1919
				순 창	653-6155